

사람 봐가며 임관시키자, 역적놈 나올라



롯데케미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2개 수상

롯데케미칼이 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인 'WINNER' 2개상을 수상했다. 롯데케미칼의 인조대리석 항균 소재인 에버모인이 적용된 위생 미팅 공간 'Care-free Zone with Staron®'은 코로나19 등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컨셉으로 'Office and Commercial Furniture' 부문에서 첫 수상을 했다. /롯데케미칼



일렉트로룩스코리아 대표,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이신영 일렉트로룩스코리아 대표이사(가운데)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일렉트로룩스코리아는 15일 이 대표가 가브리엘라 오거스톤 주한 스웨덴 대리대사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일렉트로룩스코리아



흥국생명 '자랑스러운 흥국인상' 시상식

흥국생명은 조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2021 자랑스러운 흥국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상자 심의위원회의 종합평가 및 심의를 거쳐 총 19명이 개인상을 수상했으며 특별상은 회계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흥국생명 박춘원 대표(왼쪽)와 수상자 대표 재무기획심사팀 이영미 차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흥국생명

중기중앙회-IBK기업은행

중소 근로자 자녀에 장학금

중소기업중앙회와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은행과 함께 직업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2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1000만원 규모의 '중소기업 취업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 장학금'은 지난해 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우수인력 확보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체결한 '자상한(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업무협약' 후속조치 일환이다. /김승호 기자



경동나비엔, 진도서 수해 긴급복구 서비스

15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진도군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긴급 복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경동나비엔은 지원이 필요한 고객들이 손쉽게 접수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도읍 조금시장 내에 베이스 캠프를 마련하고 보일러 무상 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경동나비엔



문형철 기자의
어수선하루

윌리엄 로우 캘리 주니어 소위는 1968년 3월 16일 베트남 미라이 마을에서 150명의 양민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베트남 공산 게릴라와 동조자들이 아니라 양민들이었다. 양민 중 다수는 여자와 아이였다. 월남전 당시 미군 장교단에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위험)'가 팽배했다. 자질부족의 장교가 넘쳐나는 시대였다. 당시 미국은 징병제였지만, 소위 말하는 '있는 집 자식'들은 병역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우리 군대에도 충구를 적어 아닌 시민과 양민에게 돌린 '역적놈'들이 될 함량미달의 불량장교가 주변을 썩게하고 있다. 우수한 감자들을 썩게 할 위험인자들이다.

군은 현재 병력자원 부족현상에

봉착했다. 서울지역 대학과 교육대학 등에서는 학군장교(ROTC) 지원이 계속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4년 ROTC 모집 경쟁률은 6.1대 1이었지만, 2019년에는 ROTC 모집 경쟁률은 3.1대 1로 급감했다. 안정적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대를 비롯한 특수대학 학생들의 ROTC 기피현상은 급기야 교대학군단 폐지로 이어졌다. 현재 학군단을 유지하고 있는 교대는 경인교대 뿐이다.

ROTC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때 1600~2000명 가량 정예 육군장교를 배출했던 학사장교도 임관인원이 급감하 중이다. 지난달 25일 임관한 학사 66기의 임관 인원은 470여명, 지난해 대비 60여명이나 줄어들었다. 이렇다보니 장교양성을 담당하는 훈육장교들은 "자질과 함량이 떨어지는 불량장교도 끼어넣기식으로 임관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군 당국은 '임관종합평가' 등을 통해, 최종단계까지 장교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전의 지휘관들은 "MZ세대 병보 다, MZ위관장교 관리가 더 힘든 상황"이라고 낮두리를 한다.

최근 육군의 최정에 제3보병사단에서는 어이 없는 일이 발생했다. 3사단 소속 A소위가 선배장교의 방에 들어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이를 나무라자 상급자인 선배장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이다. 명백한 '상급자 면전모독'이다. 그는 부하들에게 라면을 끓여오라는 등의 부당한 사적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A소위는 하나회 출신이자 군단장 출신인 할아버지가 있다며 주변을 위협했다. 3사단은 그에게 감봉과 진급누락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했다.

그렇지만, 군 안팎에서는 '불량감자는 내보내라', '썩지않은 과일도 같이 썩는 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단기복무자인 A 소위가 올해 12월 진급을 하고 내년에 전역을 하면, 없던 일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비단 A소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지역 부대소속의 재임용 장교 B중위는 군인의 영리행위금지'와 '검직금지'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네이버 온라인샵 홍보를했고, 자신도 모델로 나섰다. 대구지역의 또 다른 C중위는 연인에게 데이트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헤어진 이후 보복성 성범죄마저 일으켰다. 국방부와 합참에 근무하는 위관장교들은 노마스 크, 노전투모차림으로 서로 마주보며 음료를 마시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MZ세대 위관 장교들 중에는 이전 세대와 달리, 매니악 할 정도로 직무관련 내용을 연구하고 군인으로써 가치관을 더 소중히 지키는 우수한 인원들도 많다. 그렇지만 언제 '역적놈'으로 돌변할 지 모르는 불량감자도 많아질 수록, 우수한 장교들이 군을 떠날지 모른다는 점을 군 수뇌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captinm@metroseoul.co.kr

SKT, 고려대와 메타버스 캠퍼스 만든다

언택트 시대 캠퍼스 디지털 전환 이니셜 기반 통합 신분증 발급 등 이프랜드 플랫폼 통해 환경 구축

SKT가 캠퍼스 디지털 전환을 꾀하는 고려대와 손을 잡았다.

SK텔레콤과 고려대학교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SKT와 고려대에 따르면 ▲5G 메타버스 기반 캠퍼스 라이프 환경 구축 ▲이니셜 서비스 기반 모바일 통합 신분증 발급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에너지 캠퍼스 구축 ▲5G 인프라 구축 및 클라우드 연계 서비스 제공 ▲메시징 서비스 기반 교수회 참여 활성화 등 스마트 캠퍼스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캠퍼스 라이프가 비대면 중심으로 변하면서 5G, 클라우드와 인증 환경을 공동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플랫폼을 통해 2050



SK텔레콤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

/SK텔레콤

탄소중립 실현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SKT는 우선 고려대에 새로운 소통 트렌드인 메타버스 기반 캠퍼스를 조성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ifland)'를 통해 학생들은 각자 개성이 담긴 아바타로 수업, 회의,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한다.

'고연전'에서 메타버스가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교과 및 비교과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학생활동에도 지원한다.

SKT와 고려대는 올해 연말 도입을 목표로 블록체인 기반 이니셜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통합을 추진한다.

현재는 이용 목적에 따라 교우증, 도서관 이용증, 기숙사증, 의료원 환자 진료카드 등 실물 카드로 나뉘어 있다. 앞으로는 여러 신분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교내 온·오프라인 환경 어디에서나 신원인증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학생회 선거 투표를 위한 본인 인

증에서도 이니셜로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다. 학위, 수강내역, 학점, 상벌 서류도 이니셜 앱을 통해 발급받는 등 입학부터 졸업까지 캠퍼스 생활 전반에서 이니셜 앱으로 인증하고 증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구실은 5G 기반 초저지연·초고속 환경으로 변화한다. 5G 클라우드 기반의 연구용 플랫폼과 5G MEC 테스트 랩을 조성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연구 환경을 만든다.

ESG 경영을 위해 에너지 분야에서 기존 장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하고 데이터센터(인간두뇌와 유사한 심층AI) 기반 알고리즘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박정호 SKT 대표는 "이번 협력은 과거 오프라인에만 국한되던 대학 캠퍼스 개념을 가상 캠퍼스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SKT가 보유한 5G, 메타버스, 블록체인, IoT(사물인터넷) 등 핵심기술로 캠퍼스에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순복 수습기자 sunbok@

쌍용C&E 강원도에 자가진단키트 전달

동해·삼척·영월지역에 5000세트

쌍용C&E가 강원도 동해·삼척·영월지역에 코로나19 자가검사 진단키트 5000세트를 전달했다.

15일 쌍용C&E에 따르면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에 전달한 자가진단키트는 선제적인 검사로 확진자 조기 발견과 함께 추가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등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쌍용C&E 동해공장 원용교 공장장(오른쪽)이 심규연 동해시장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쌍용C&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인사

◆국방부 <과장급 인사 >대북정책관실 군비통제정책과장 박종일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제도기술과장 양원석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장 정주라

◆방위사업청 <과장급 전보 >무인계약팀장 김석

◆국토안전관리원 <전보 >△부원장 겸 재난안전본부장 강부순 △기반시설본부장 신원규 △건설안전본부장 권혁기 △생활시설본부장 이종우 △안전성능 연구소장 김동희 △감사실장 강영규

◆환경부 <과장급 전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김진식 △환경보건국 화

학물질정책과장 박봉균 △환경보건국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팀장 이지현 <과장급 승진 >△환경보건국 생활환경과장 이경빈

부음

▲정순월씨 별세, 조성훈(캐나다 거주)·조성준(블룸버그 통신 사진기자)씨 모친상, 안수경(밝은미소치과 실장)씨 시모상=15일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7시30분, 062-231-8903

▲조상현(광주 광산구의원)씨 별세 = 15일 오전, 광주 광산구 판평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17일 오전. 062-611-0000